

#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중국의 농업과 농정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  
현지조사

## I. 출장 개요

### 1. 출장목적

- 중국의 농업 발전 현황과 농정 동향 파악
-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농업자원,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과 무역, 농산물 시장과 소비 등 중국 삼농 관련 통계 및 정책자료 수집
- (계)중국농업동향 농업정책브리핑 집필진(전문가그룹) 탐색

###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소속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정정길 선임연구위원	중국 베이징	2017. 12. 4. ~ 12. 8. (4박 5일)

### 3. 주요 내용

- 중국의 농업 여건 파악
  - 농업자원 현황 및 여건 변화
  - 농업 법규 및 제도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발전 동향
- 중국의 농업 발전 추이 파악
  - 주요 농산물 생산과 소비 동향
  - 농산물 유통: 유통 체계, 유통 현대화 등
- 중국의 농업정책 파악
  - 삼농정책의 변천
  - 식량정책, 지원정책, 식품안전정책, 토지정책 등
- 중국의 삼농 현황 및 통계자료 수집
- (계)중국농업동향 집필 관련 연구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2.4(월) 15:00-17:00, 본원 중국사무소
- 참석자: 본원 출장자, 중국사무소 관계자, 중국 전문가 등 총 10명 내외
- 주요 논의 사항: 농업정책자료 집필 및 중국농정동향 자료 협조 요청

#### 4. 일정표(방문기관 등)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수행 업무
12.4 (월)	서울김포 09:20	베이징 10:35	KE2851	출 국
	오후		본원 중국사무소	· 업무 협의 · 전문가협의회 개최
12.5 (화)	오전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 중국의 농산물 무역 추이 및 특징 파악 ·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파악
	오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발전 실태 파악 ·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 동향 파악  · 중국의 농업농촌경제 발전 실태 파악 · 중국의 농업 발전 전망 타진
12.6 (수)	오전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 중국의 농업정책 동향 파악 · 시진핑 정부의 농정 방향
	오후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 중국의 농산물 소비 여건과 동향 파악 · 중국의 식품안전 정책 추진 실태 파악
12.7 (목)			농업출판사, 통계출판사	· 중국농업통계자료 등 최신 통계 및 삼농관련 단행본 수집 · 중국통계연감, 중국농촌통계연감 외 각종 농업부문 통계자료
12.8 (금)	베이징 11:45	서울김포 14:55	KE2852	귀국

※ 일부 방문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음.

## II. 주요 출장 조사 결과

### 1. 중국농업동향 관련 연구협의회 개최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12.4(월) 15:00-17:00, 본원 중국사무소
- 참석자: 10명
  - 원내: 정정길, 전형진, 왕경
  - 원외: 许国栋, 李京虎, 李锦, 李明花, 吕向东, 韩一军, 张益
- 주요 논의 사항: 농업정책자료 집필 및 중국농정동향 자료 협조 요청

#### □ 주요 논의 내용

##### 1) 정책자료와 주요 농정브리핑 원고 집필 방안

- 중국 현지의 전문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주요 농정연구기관의 전문가 또는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가운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할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선별하여 중국 현지 전문가 풀을 구성
  - 현지 전문가 풀에 포함된 집필진의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중국농업동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선별하여 집필 의뢰
  - 현재 우리 연구원과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또한 현재 연구협력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연구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중국농업과학원 산하 연구소, 중국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농업대학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업대학과 일반대학 경제관리학원, 농학원 등의 전문가 활용도 하나의 방안이 됨. 특히 각 대학에는 수

많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있어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중국전문가 그룹 활용 방안 다각적 검토 필요

- 국내 연구기관이나 각 대학에서 중국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 각 대학 농업경제 또는 농식품 관련 학과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학생 활용 방안 강구
- 중국 대학 관련 학교 및 학과에 유학중인 한국학생을 현지 리포터 또는 통신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 구체적인 활용 방법으로는 원고 집필 및 특정자료 번역 의뢰, 학위논문의 요약 발표 등 추진

2) 농업·농촌경제 동향과 분기별 주요 농업정책 동향 관련 자료 수집 방안

-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 현재 중국의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 내에서 정기적으로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을 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역할을 주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의 농업 농정 분야의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업무 담당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간행물 발간 즉시 자료 파일 등을 확보하여 계간지 작성에 활용
- 특히 자료 수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학생 등 특정인을 지정하여 매월 중국농업출판사, 통계출판사 등에 보내 유용한 자료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도록 권유

3) 중국사무소와의 협업 강화

- 현재 본원 중국연구팀과 중국사무소 간에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때로 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는 경우 발생. 따라서 상호간의 업무 연락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사무소가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국농업 브리프의 자료를 중국농업동향에 적극 활용하되, 내용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관심 분야 관련 연구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간지 편집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중국의 각 기관이나 출판사에서 발간하여 중국 삼농 관련 간행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본원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등 본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중국의 농산물 무역 동향

### □ 2016년 중국의 농산품 수출입 실적

- 2016년, 중국의 농산품 무역액은 1845.6억 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했음. 그중 수출은 729.9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고, 수입은 1115.7억 달러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음. 무역적자는 38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6.5% 감소함.

#### 1) 곡물

- 곡물은 총 2199.7만톤 수입하여 전년대비 32.8%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57.1억 달러로 전년대비 39.2% 감소함. 곡물 수출은 63.6만 톤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5억 달러로 13.6% 증가함. 곡물 순수입량은 2136.1만 톤으로 전년대비 33.6% 감소함.
- 밀: 수입 341.2만 톤, 전년대비 13.5% 증가, 수출은 11.3만 톤으로 전년대비 7.4% 감소

- 옥수수: 수입 316.8만 톤, 전년대비 33.0% 감소. 수출은 4071.4만 톤으로 전년대비 63.4% 감소
- 쌀: 수입 356.2만 톤, 전년대비 5.5% 증가. 수출은 39.5만 톤으로 전년대비 37.5% 증가
- 보리: 수입 500.5만 톤, 전년대비 53.4% 감소
- 수수: 수입 664.8만 톤, 전년대비 37.9% 감소
- 옥수수정박(DDGs): 수입 306.7만 톤, 전년대비 55.0% 감소
- 카사바: 수입 770.4만 톤, 전년대비 17.8% 감소

## 2) 면화와 식용 당

- 면화: 수입 124.0만 톤, 전년대비 29.5% 감소, 수입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대비 34.7% 감소. 이 밖에 면화 대체상품인 면사 수입은 196.8만 톤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
- 식용 당: 수입 306.2만 톤으로 전년대비 36.8% 감소, 수입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대비 34.0% 감소

## 3) 식용유지와 식용식물유

- 식용유지: 수입은 6852.9만 톤으로 전년대비 2.2% 증가, 수입액은 370.4억 달러로 전년대비 3.5% 감소. 수출은 87.4만 톤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수출액은 14.2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감소. 무역적자는 356.2억 달러로 전년대비 3.5% 감소. 그중 대두 수입은 8391.3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유채 수입은 356.6만 톤으로 전년대비 20.2% 감소.
- 식용식물유: 수입은 688.4만 톤으로 전년대비 18.0%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50.5억 달러로 15.6% 감소. 수출은 11.5만 톤으로 전년대비 16.0%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16.9% 감소. 무역적자는 4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5.5% 감소. 그중 올리브유 수입은 447.8만 톤으로 전년대비 24.2% 감소하였고, 유채기름 수입은 7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4.1% 감소하였으며, 해바라기기름과 홍화기름 수입은 95.7만 톤으로 전년대비

47.0% 증가하였고, 대두유 수입은 56.0만 톤으로 31.5% 감소함.

#### 4) 채소와 과일

- 채소: 수출은 147.2억 달러로 전년대비 11.0% 증가, 수입액은 5.3억 달러로 2.0% 증가함. 무역흑자는 141.9억 달러로 전년대비 11.5% 증가함.
- 과일: 수출액은 71.4억 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 수입액은 58.1억 달러로 1.0% 감소함. 무역흑자는 13.3억 달러로 전년대비 30.5% 증가함.

#### 5) 축산품과 수산물

- 축산품: 수입액은 234.0억 달러로 전년대비 14.5% 증가, 수출액은 56.4억 달러로 4.2% 감소함. 무역흑자는 177.6억 달러로 전년대비 22.0% 증가함. 그중 돼지고기 수입은 162.0만 톤으로 전년대비 1.1배 증가하였고, 돼지부산물 수입은 149.1만 톤으로 82.5% 증가함. 소고기 수입은 58.0만 톤으로 전년대비 22.4% 증가. 양고기 수입은 22.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 감소. 분유 수입은 84.6만 톤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207.4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증가. 수입액은 93.7억 달러로 4.4% 증가함. 무역흑자는 113.6억 달러로 전년대비 0.1% 증가함.

### □ 2017년(1-10월) 중국의 농산품 무역 추이

#### (1) 전체적인 형세

- 1~10월, 중국의 농산품 무역 총액은 증가함. 수출은 소폭 증가하였고 수입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큼. 무역적자는 확대.

#### 2017년 1~10월 중국의 농산품 무역 상황

	금액(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무역총액	1,628	9.4
수출	599	2.6
수입	1,029	14.0
무역적자	430	34.8

- 주요 수출품목 중 과일을 제외한 기타 품목은 모두 증가함. 가금류의 증가율이 9.4%로 가장 높음.

2017년 1~10월 주요 품목 수출 실적

	수출액(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증감
수산물	168.7	1.5	△
채소	124.8	5.5	△
과일	52.6	-3.6	▽
가금	13.5	9.4	△
차잎	13.9	6.0	△

- 주요 수입품목 중 식용당 수입은 감소하고 곡물, 과일, 채유종실(油籽), 식물유, 면화, 분유 수입은 증가. 그중 면화와 분유의 수입 증가폭이 높음.

2017년 1~10월 주요 품목 수입 실적

	수출액(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채유종실	349.4	18.9
곡물	54.6	9.9
과일	53.0	6.3
식물유	57.1	20.2
분유	50.7	40.6
면화	20.1	46.1
식용당	9.5	-4.3

- 주요 수출입 시장: 대 홍콩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EU, 아세안, 일본 및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함. 주요 수입시장에서의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 호주의 경우 양고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62.2% 증가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신선우유와 분유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4.0%와 60.7% 증가하였음.

2017년 1~10월 주요 시장별 수출입 실적

시장	수출	증가율	시장	수입	증가율
아세안	124.4	1.8	브라질	214.6	19.9
일본	83.0	1.6	미국	178.8	10.3
홍콩	76.4	-4.0	아세안	135.6	15.4
EU	70.2	4.8	EU	120.2	3.2
미국	62.2	5.3	호주	73.9	33.3
한국	37.1	1.6	뉴질랜드	50.9	33.8

(2) 주요 농산품 수출입 상황

- 곡물 수입 9.9% 증가. 보리와 귀리(燕麥) 수입 큰 폭 증가

2017년 1~10월 주요 곡물 수입 실적

품목	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곡물	2210.0	13.5
쌀제품	328.2	18.0
밀제품	403.7	28.1
보리제품	235.1	-21.5
옥수수제품	454.4	-26.8
수수제품	764.1	82.9
귀리제품	23.8	58.4
옥수수주정박(DDGs)	37.9	-86.6

- 면화 수입량 18% 증가, 수입가격 24% 증가

- 수입량: 1~10월 면화 수입량은 116.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2%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6.1% 증가
- 수입가격: 원면 수입 평균가격은 톤당 1,727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3.5% 증가함.
- 수입국가: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호주, 인도, 우즈베키스탄 및 아세안이며 수입량은 각각 46.8만 톤, 23.5만 톤, 14.2만 톤, 8.4만 톤 및 5.4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9.1%, 21.1%, 18.7%, -42.6% 및 15.0%임.

○ 유지류 수입량 16% 증가, 식물유 수입량 12% 증가

2017년 1~10월 유지류와 식물유 수입 실적

품목	수입량	증가율	품목	수입량	증가율
식용유지류	8,277.1	16.1	식용식물유	592.8	12.4
대두	7,730.0	16.4	올리브유	396.5	18.3
유채	396.0	31.2	카놀라유	65.6	16.1
			대두유	60.5	36.1

○ 식용당 수입량 26% 감소, 수입가격 30% 증가

- 수입량: 1~10월, 식용당 수입량은 199.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6.3%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9.5억 달러로 4.3% 감소함.
- 수입가격: 수입 평균가격은 톤 당 475.8달러로 29.8% 상승
- 수입국가: 주요 수입처는 브라질, 쿠바, 태국 및 한국이며 수입량은 각각 78.9만 톤, 40.2만 톤, 26.2만 톤 및 13.9만 톤으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55.5%, -7.9%, 84.0% 및 -10.0%임.

○ 채소 수출 증가, 과일 수출 감소

- 채소 수출: 1~10월 채소 수출액은 124.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
- 채소 수출시장은 180개 국가와 지역에 달함. 주요 수출시장은 아세안, 일본, 한국, 미국, 홍콩 및 EU 등임.
- 채소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함. 주요 수입처는 미국, EU 및 아세안임.
- 과일: 1~10월 과일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 감소. 수입액은 53.0억 달러로 6.3% 증가. 무역적자는 0.4억 달러임.
- 과일 수출: 주요 수출품목은 감귤, 사과이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3%와 -0.7% 증가. 주요 수출시장은 아세안, 미국 및 일본이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5.6% 및 1.9% 증가.

- 과일 수입: 주요 수입 품목은 포도, 체리, 감귤, 두리안, 바나나, 키위, 화롱과 등이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7.5%, 1.3%, 57.6%, -22.5%, -8.8%, 5.2% 및 -2.8% 증가. 주요 수입처는 아세안, 칠레 및 미국임.

○ 축산품 수출입 증가

- 1~10월 축산품 수입은 208.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 수출은 51.0억 달러로 12.5% 증가.
- 그중 돼지고기 수입은 100.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7.9% 감소. 돼지 부산물 수입은 103.6만 톤으로 15.4% 감소. 소고기 수입은 55.5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6.8% 증가. 양고기 수입은 20.1만 톤으로 4.6% 증가. 분유 수입은 88.6만 톤으로 26.0% 증가.

2017년 1~10월 주요 축산품 수입 실적

단위: 만 톤, %

	수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수입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돼지고기	4.3	9.9	100.5	-27.9
돼지부산물	0.03	-32.0	103.6	-15.4
소고기	0.08	-78.5	55.5	16.8
양고기	0.3	21.4	20.1	4.6
가금제품	41.1	9.2	36.7	-26.8
분유	0.8	47.6	88.6	26.0

○ 수산물 수출 약간 증가, 수입 22% 증가

- 수출입: 1~10월 수산물 수출액은 168.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액은 94.2억 달러로 21.9% 증가. 무역흑자 74.5억 달러.
- 주요 시장: 일본, 미국, 아세안, 홍콩, 한국등이 주요 수출시장임. 주요 수입시장은 페루, 러시아, 미국, 아세안 및 캐나다.

(2) 한중 농산품 무역 동향

□ 전반적인 동향

- 2016년 까지, 한중 농산품 무역은 파동형 증가 추세를 나타냄. 2017년 1~10월, 한중간 농산품 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
  - 그중 대한 수출액은 37.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 대한 수입은 7.4억 달러로 7.1% 감소
-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수산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은 모두 수출이 증가함. 채소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2%로 가장 높음.

2017년 1~10월 대한민국 주요 수출 농산품

	수입액(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수산물	11.9	-6.7
채소	10.7	12.0
유지류	1.5	2.1
음료	1.5	3.3
곡물	1.2	4.0

- 대한 주요 수입 농산품은 대부분 수입이 감소함. 그중 축산품 수입 감소폭이 33.6%로 가장 크게 나타남.

2017년 1~10월 대한민국 주요 수입 농산품

	수입액(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수산물	1.6	-18.9
음료	1.1	-1.8
식량제품	1.1	31.0
당료 및 설탕	0.9	-5.2
축산품	0.6	-33.6
과일	0.3	-18.0

□ 한중 농산물 무역 구조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 농산품 중 수산물과 채소는 주요 수출 농산품으로 수출 비중이 수출 총액의 반 이상을 차지함.
-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품으로는 수산물, 음료 및 축산품이 있음.

□ 중국의 대한국 주요 농산품 수출입 동향

- 수산품 수입 18.9% 감소, 수출 6.7% 감소
- 채소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0% 증가
  - 채소 중 양파의 수출 증가율(216.9%)이 가장 높은 반면 마늘은 수출 감소폭(-59.52%)이 비교적 큼.
- 한국으로부터 음료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
- 한국으로부터 축산품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4.0% 감소

□ 중국 전문가의 한중 농산품 무역에 대한 견해

- 한중 양국의 농산품 무역은 상호보완성이 강하므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
-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농산품과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농산품을 보면, 자원 배치 우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

### 3.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 1) 기본 농업정책

□ 경지정책

- 중국 정부는 경지보호를 위한 일련의 방침과 정책 수립 시행을 통해 경지 보호를 강화함. 1986년 “토지관리 강화와 경작지 무단 침범을 제지에 관한 통지” 발표를 시작으로, 1992년에는 “경작지 남용과 파괴 금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1994년의 “기본농지보호조례”, 1997년의 “토지관리 강화 및 경지보호 강화관련 통지” 등을 발표하였음. 1998년에는 경지보호 관련 내용을 “형법” 조항에 삽입하였는데 “경지파괴죄”, “불법토지승인죄”, “불법토지양도죄” 등을 증설하여 경지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음.
- 중국공산당은 주요 정책결정 회의(16기 3중 전회)를 통해 국가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국무원은 “토지관리의 심화·개혁에 관한 규정”(국발(2004)28호)을 제정하여 엄격한 경지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농지를 확정하고 기본 농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건설용 토지는 성(省)급을 넘어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점,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의 권리 확정 및 등록과 허가증 수여를 계속 추진한다는 점, 토지 도급 경영권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간다는 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재정정책

- 농업·농촌분야 재정투입을 증대시키고,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대한 예산 총액과 비중을 제고하고, 토지매도에 따른 수익을 농업토지개발, 농전수리 및 농촌기초건설 분야에 집중 투입함. 또한 금융기관의 농업신용대출 규모 확대 등 "삼농"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삼농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함.

□ 식량안보정책

-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절한 식량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단위수확량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 "전국 식량생산 천억근 증산계획", 식량주산지의 이익보상메커니즘 구축, 채람자공정 시행 등 식량안보 확보에 필요한 정책 조치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

□ 농촌민생정책

- 농민직업기술 및 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모색. 이 외에 농촌의 식수·도로·가스·노후주택의 개조, 농촌교육·3급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및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확립,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지역 확대, 농촌의 토지관리제도, 집체림권 제도 및 초원 승포경영제도의 확립, 농촌 토지승포경영권의 시장유통 방안 마련, 농촌종합개혁 추진, 농촌의 금융서비스 개선, 농민공 문제의 해결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농촌지역 민생문제를 개선하고 삼농 발전을 강화해 나감.

2) 농업지원정책

- 2000년대 들어, 중국정부는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농업세 삭감 및 면제 사업을 시범 도입하였고, 2006년에는 농업세 전면 철폐를 단행하였으며, 농업분야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농업세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농업세를 징수해 오다가 2000년대에 진입하여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 농업지원제도는 초기에 주요 품목이나 항목에 시범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점차 지원(보조)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감.

□ 현행 주요 농업지원정책

-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의 형태는 농업재정지원지출 방식의 제1유형, 농민 보조 방식의 제2유형, 농촌사회사업 발전 지원 방식의 제3유형으로 구분
- 현재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정책으로는 소득직접보조정책, 생산 보조정책, 기술보급보조정책, 농업·농촌 공익건설사업보조정책, 농민생활 보조정책 및 특별이전지원정책이 있음.

■ 주요 농업지원정책과 내용

■ 식량안보 관련 지원정책

- ① 식량생산보조 정책: 식량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였음. 이 정책은 이전에 식량 유통단계에서 시행했던 지원을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한 것임. 보조방식은 일반특혜제도로 세금징수면적 또는 토지도급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임. 각 지역(성)의 식량재배면적, 식량생산량 및 상품식량수량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따라 지불금 지원 기준이 큰 차이가 나타남.
- ② 최저수매가 정책: 2005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벼와 밀이 주요 대상임. 벼와 밀의 시장가격 안정에 효과적 대응하며, 최저수매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 최저수매가격은 기존의 보호가격과는 다름. 최저수매가 정책은 시장개방 조건의 시장 의탁 구매방식이고 보호가격 정책은 국가식량유통부문의 독점시장구매방식으로 운영됨. 최저수매가 정책은 연속적인 식량 증산으로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됨.
- ③ 임시저장정책: 일부 대중 농산물에 대해 임시구매를 실시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킴. 주요 품목은 옥수수, 대두, 유채, 면화, 사탕수수, 돼지, 분유 등. 실시 방식은 중국식량저장회사가 담당하며 일부 가공기업이 개입하기 시작하였음.

- ④ 식량생산대현(大縣) 지원정책: 식량주산지 지방정부의 식량생산을 장려하여 식량 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금 정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임. 식량생산대현의 기준은 연평균 식량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이고, 그 중 상품식량이 5천 톤 이상이어야 함.

■ 농업생산요소(기자재) 관련 지원정책

- ① 농자재종합보조 정책: 농자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함. 식량생산 직접지원 경로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농자재종합보조 역시 식량생산보조와 같이 주 대상이 식량주산성임.
- ② 농기구구매보조 정책: 농민들로 하여금 현대화 된 농기계를 사용하도록 장려·지원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가속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이 정책은 1998년부터 시범 실시 후 200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이 정책의 대상 품목은 전통적인 경종과 수확에서 가뭄방지 영역까지, 생산에서 일차가공 영역까지 광범위한 영농 활동에 사용되는 농기구를 포함하며, 2008년부터 지원 범위를 농업과 축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였음.
- ③ 우량종자보조 정책: 우량종자보조는 작물우량종자보조와 가축우량종자보조로 구분하여 시행됨.
  - 작물우량종자보조: 2002년에 대두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04년에는 벼, 밀, 옥수수, 2007년에는 유채와 면화, 2009년에는 땅콩, 감자 및 청보리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음. 대상지역은 3대 식량작물과 면화는 전체 재배지역, 기타작물은 특화(우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음. 보조금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벼는 현금보조, 밀, 옥수수, 대두는 종자보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츰 현금보조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 편입된 대상작물은 모두 현금보조 방식 적용
  - 가축우량종자보조: 2004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젖소 냉동정자만이 보조 대상이었으나 2007년에 생돈에 까지 확대
- ⑤ 돼지생산보조 정책: 2007년에 도입 시행하였으며, 번식능력을 보유한 모돈의 수에 의거 보조금 지급. 또한 돼지생산대현(大縣)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돼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

간 돼지 출하량이 80만 마리 이상인 현(시)을 돼지생산대현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 농민교육 및 생태환경 관련 지원정책

- ① 농민교육보조: “햇빛공정”이라 일컬으며 2004년에 농촌노동력 직업직능교육보조에 사용함. 새농민 교육으로 2006년에 농민생산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취업농민을 육성함.
- ② 자원과 생태보조정책: 퇴경환림(退耕還林)과 퇴목환초(退牧還草) 정책이 대표적임. 퇴경환림정책은 서부지역과 기타 생태환경이 취약한 경사도 25도 이상의 수토유실이 심각한 경사지와 사막화가 심한 경지를 숲이나 초지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퇴경환림을 수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금보조와 식량보조를 실시함. 퇴목환초정책은 현행 목장지역을 초원으로 복원시키려는 정책으로 2003년에 도입하여 네이멍구, 간쑤, 닝샤 서부의 황무지 사막 초원, 네이멍구 동부 퇴화초원, 신장북부 퇴화초원과 칭장고원 동부 장허위안 초원 등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삼음.
- ③ 이 밖에도 토양유기질 제고 보조, 소형 농전수리건설보조, 농촌 인프라 구축 보조 등의 다양한 소규모의 보조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3) 식품안전 정책

#### □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 강화

- 시진핑주석: “식품안전 확보는 민생공정이자 민심공정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13·5가 시작되는 해인 2016년에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를 통일하고 가장 엄격한 위생기준, 감독관리, 처벌, 문책 등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 리커창총리: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언급하고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와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식탁오염 퇴치에 많은 일을 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업무이므로 논밭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 관리감독제도를

시행하여 법규 위반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장가오리위원장(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각 지역의 유관 부문은 식품업체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명절 등 기간의 잠재적 식품사고 요인을 조사하고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도록 지시함.
-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 보장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높은 관심을 갖고 식탁오염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

#### □ 식품안전 확보 위한 정부조직 개편

- 중국국무원은 2013년 3월 10일을 기해 끈임 없이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FDA)’을 설치하였음.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은 기존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검사 및 관리창구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임. 이는 식품과 의약품의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임.

#### 4) 식량수매정책

##### ■ 최저수매가정책

- 1998년 이후 5년 연속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98년 대비 16% 감소한 4억3070만 톤에 불과, 중국 정부는 식량안전 확보에 위기를 감지하고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 조치를 단행하였음.
- 2004년 봄 파종 전 국가에서는 최저수매가격 정책을 발표하고 뒤이어 “식량유통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 2004 ] 17호)을 통해 이를 제도화시킴. 그 후 주요 식량생산지역에서 최저수매가정책을 실행함.
- 2005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벼 최저수매가정책을 실행하였고, 2006년에는 밀 최저수매가정책을 실행함. 2008년에는 최저수매가격을 두 차례 상향 조정하고 동시에 일부 식량의 최저수매가정책 적용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 ■ 식량비축제도의 완비

- “식량유통체제의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 2004 ] 17호)에서는 중앙과 성급 정부의 직권에 따라 식량비축제도와 조절제도를 철저히 완비하도록 지시함. 즉 “생산지역은 3개월 분량의 판매량을, 판매지역은 6개월 분량의 판매량을 유지”하도록 요구. 2006년 국무원은 이러한 시장화 개혁 요구에 부합하도록 중앙에서 식량비축조절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식량비축관리회사는 어떠한 상업적 경영 활동에도 참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

## ■ 식량가격 파동에 효율적 대처

- 2006년에 중앙비축은 모두 24차례의 벼 경매와 7차례의 밀 경매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총 43차례의 벼 경매와 48차례의 밀 경매 실시하여 식량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함.

## ■ 식량위험기금 운용

- ‘식량유통관리조례’에 의거 식량위험기금을 종자식량 농민직접보조, 식량비축 지원, 식량시장 안정 등에 사용함.

## ■ 식량 산지와 주요 판매지역에서의 이익조절체계 구축

- 생산지역의 식량판매를 확보하고 판매지역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유통체제의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 2004 ] 17호)에서는 주요 식량판매지역과 주요 생산지역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구매 및 판매 합작체제를 마련하고 주요 판매지역은 주요 생산지역의 식량생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함.
- 주요 식량판매지역과 생산지의 이익 불균형에 관해 “식량유통체제의 개혁 정책 실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 [2006] 16호)에서는 주요 판매지역 간의 이익조절체제를 마련하고 경제발달지역인 주요 식량판매지역은 중앙재정보조의 식량위험기금을 식량의 생산과 판매와 연결해 사용하고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식량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촉구함.

5) 장바구니프로젝트(菜籃子工程, shopping basket program)

- 장바구니프로젝트(이하 채람자공정)은 1988년 농식품의 수급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부가 수립한 일종의 민생공정(농식품안정공급 프로그램)임.
- 채람자공정은 시대 상황에 따라 목표와 내용을 변경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채람자 공정은 일련의 새로운 시대 상황에 처하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0년 중앙1호 문건을 통해 “새 단계 채람자 공정”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국무원은 “새 채람자 공정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새 단계 채람자공정은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수 요건임.
  - 농업은 제2, 3차 산업에 원자재, 노동력 등 기본생산 요소들을 제공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공업화와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농업은 경제적 수익이 제2, 3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일부 대도시에서는 교외 채람자 생산 발전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가 약하고 투자도 적어 도시채람자 생산이 중시되지 않는 위험에 처해있음. 반면에 중대형 도시는 교외 농민과학기술 문화가 전체적으로 비교적 높고 생산 기초시설 조건도 상대적으로 좋으며 정보, 자금, 기술 등의 우세도 가지고 있어 새 채람자 공정 실시를 통해 시설화와 집약화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토지생산성, 자금이용률 및 노동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여 농업현대화 실현이 가능함. 따라서 중·대 도시의 공업화와 도시화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여 공업화, 도시화 및 농업현대화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새 단계 채람자공정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일원화 발전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조치임.
  - 최근 일부 중·대 도시 규모가 부단히 확대되고 있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토지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됨. 도시 채람자공정에 필요한 면적과 각종 시설이 급격히 감소되고 일부 지방은 대량의 경지가 황폐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채람자 생산 자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채람자 시장의 수급에 돌발적인 파동 발생이 야기됨. 채람자 공정은 많은 도시 교외의 주도적 지주 산업이며 교외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경로이며 도시근교의 경제사회발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
  - 중·대 도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채람자공정은 중·대 도시 근교농업의

기능을 더욱 명확히 하고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과 건설계획 그리고 산업지역 공간패턴과 기초시설, 자원요소 배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농촌경제사회의 일원화 발전의 새로운 패턴 형성에 유리함.

- 새 단계의 채람자공정은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새 채람자공정은 시장의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생산과 판매의 연결을 강화하고 채람자 생산물의 수집과 분산, 가공, 냉동과 신선도 유지능력을 높이고 시장체제를 완비하고 시장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채람자의 대생산, 대시장, 대유통 형태로의 발전을 촉진함.
- 새 단계 채람자공정은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비구조 개선을 만족시키는 내적 수요임.
  - 전반적인 샤오강(小康) 사회에 진입한 도시와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채람자의 소비수요도 양적 추구에서 질, 맛, 영양, 안전의 추구로 변화함. 따라서 새 단계 채람자공정은 농식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 새 단계 채람자공정은 채람자산업의 발전 방식을 개선시키는 필연적 선택임.
  - 새 채람자공정은 고수준, 고표준의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고강도 투자, 고효율 관리, 전문화, 규모화, 조직화, 표준화 추구를 위해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발전 방식을 지향하고 시장 질서를 정립함으로써 고생산, 고품질, 고효율, 생태안전의 발전 목표를 실현함.
- 새 단계 채람자 공정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임무임.
  - 실천적 경험을 종합하고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채람자 산업의 발전이 새 단계에 도달하게 함.
- 채람자공정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 산업화경영 발전 추진
    - 용두기업(농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채람자 생산 전업합작사와 농촌 중개인의 농산물가공기업 설립 추진.
    - 채람자 용두기업과 농민전업합작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채람자 상품 생산과 유통 조직화 수준을 높임.
    - 농업생산자와 슈퍼마켓의 연결을 전면적으로 전개. 채람자 합작사의 신선농산물이 직접 대형 슈퍼마켓이나 유통기업에 연결되고 합작사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경로와 조치를 모색함.

- 원예농산물 집약화 생산지역 건설 강화
  - 채소, 과일, 차 등 원예농산물 우세지역에서 생산기반을 굳건히 하고, 원예농산물의 표준화·규모화·집약화 수준, 자연재해와 시장위험 방지 능력 및 상품 품질 안전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농민소득을 증대시킴.
  - 이를 위해 집약화 육묘시설 건설 강화, 표준화 생산시설 건설 강화, 상품화 처리시설 건설 강화를 추진함.
- 농산물 품질안전 강화
  - 농업표준화 추진,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측체계와 이력추적제도 구축, 농산물 품질안전검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바구니의 품질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 농산물시장 유통체계 구축
  - 현대물류와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농산물 시장체계 건설을 가속화

#### 4. 주요 면담 전문가 및 수집 자료 목록

##### □ 면담 전문가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책
吕向东	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처장
封岩	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처장
毛世平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처장
梁书民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
李先德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
张玉梅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
黄丽江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연구원
王燕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부연구원
夏海龙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부처장
王健文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처장
韩一军	중국농업대학 교수
卢肖平	국제감자센터 부주임

□ 수집 자료 목록

- 중국통계연감 2017
- 중국농업연감 2016
- 중국농촌통계연감 2016
- 중국 농산품 무역발전보고 2017
- 일대일로 배경하의 중국농업 대외협력 문제 연구
- 중국 도시화의 자원 한계와 해결 방안
- 중국국제감자센터 30년의 협력과 성과
- 식량최저수매가정책의 개혁 방안과 영향 분석
- 중국이 최근 5년 중국이 도입한 농업녹색발전 관련 법률과 법규 목록
- 중국 보리산업경제 2015
- 국제농산품무역통계연감 2016
- China Agricultural Development Report 2016